

BRIEF

발행인 | 정재근 편집위원 | 류유선·이유라 발행일 | 2022. 4. 30.

혼자 사는 김노인의 '빈곤과 질병'
우리는 모두 노인이 된다

홀로 사는 노인이 2020년 160만명을 넘어서면서 일반가구 구성원 중 65세 이상 1인가구가 21.1%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전시 또한 5년 전과 비교해 3.4%p 증가한 21.1%이다.¹⁾ 빠른 속도로 늘어난 노령 1인가구는 다양한 고충을 겪고 있다.

2021년 대전시 사회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은 경제적 어려움(31.6%)과 건강 문제(31.4%)를 가장 많이 꼽았다.

그렇다면 대전의 독거노인 규모와 그들 중 빈곤과 질병의 위험에 노출된 이는 얼마나 있을지 주목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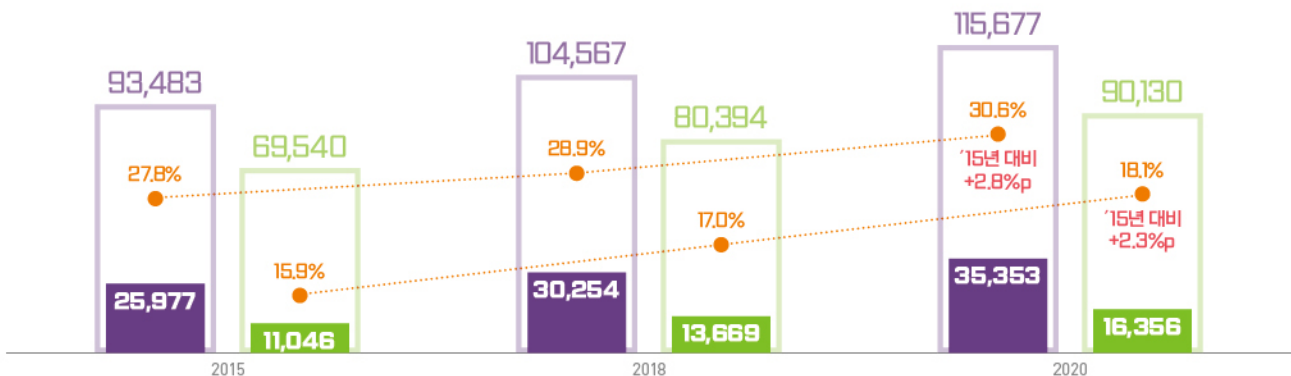
대전 여성노인의 30.6%, 남성노인의 18.1% '나 혼자 산다'

2020년 대전에 혼자 사는 65세 이상 노인 51,709명 중 여성 35,353명, 남성 16,356명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2배 이상 많다. 전체 노인 대비 독거노인 비율을 살펴본 결과, 여성 독거노인은 2015년 27.8%에서 2020년 30.6%('15년 대비 +2.8%p)로 늘었으며, 남성 독거노인은 2020년 18.1%로 5년 전보다 2.3%p 상승했다. 남녀 모두 증가세를 보이며, 남성에 비해 여성의 상승폭이 약간 크다. 5개 자치구 모두 2018년보다 늘었으며, 여성노인 1인가구 비율이 남성과 비교해 높다. 여성과 남성 독거노인 비중이 가장 큰 곳은 동구였으며, '18년 대비 가장 크게 비율이 증가한 집단은 유성구 여성 독거노인(+1.9%p)으로 나타났다.

대전 노인 1인가구

□: 여성노인 ■: 여성독거노인 □: 남성노인 ■: 남성독거노인 ●: 독거노인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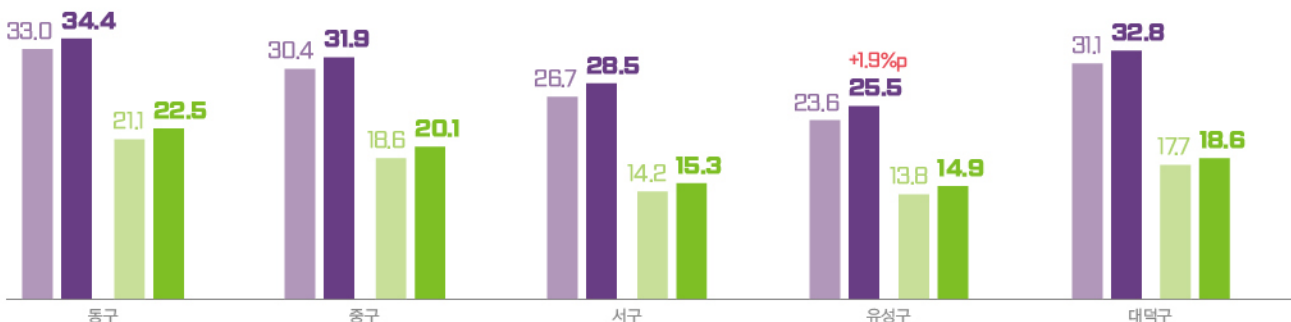
단위: 명



자치구별 노인 1인가구 비율

■: 여성 2018 ■: 여성 2020 □: 남성 2018 □: 남성 2020

단위: %



1) 통계청, '인구총조사', 1년 주기

*2015년 대전 전체 인구, 노인 인구는 7월말 기준 주민등록 집계 자료임(외국인 제외)

*2018년 이후 대전 전체 인구, 노인 인구는 6월말 기준 주민등록 집계 자료임(외국인 제외)

*노인 1인가구(독거노인):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 1인세대

*독거노인 비율=만 65세 이상 1인가구/만 65세 이상 인구×100

*백분율 수치는 반올림 값으로 합산수치 상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출처: 대전광역시, 『2020년 독거노인등록통계』

상승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독거노인 비율, 5년 전보다 여성 6.0%p, 남성 9.9%p↑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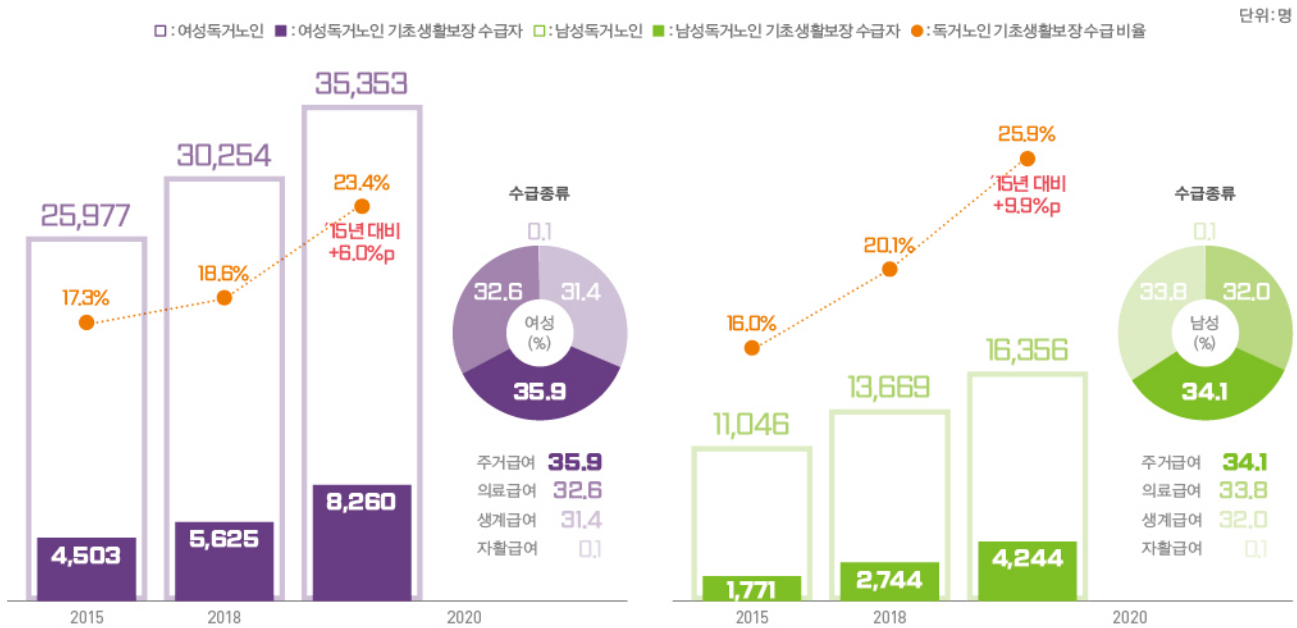
*독거노인 기초생활보장 수급 비율=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 1인가구/만 65세 이상 1인가구×100

*기초생활보장 수급은 1인이 2개 이상(수급종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급여 수급자는 통계치가 적어 제외

*출처: 대전광역시, 『2020년 독거노인등록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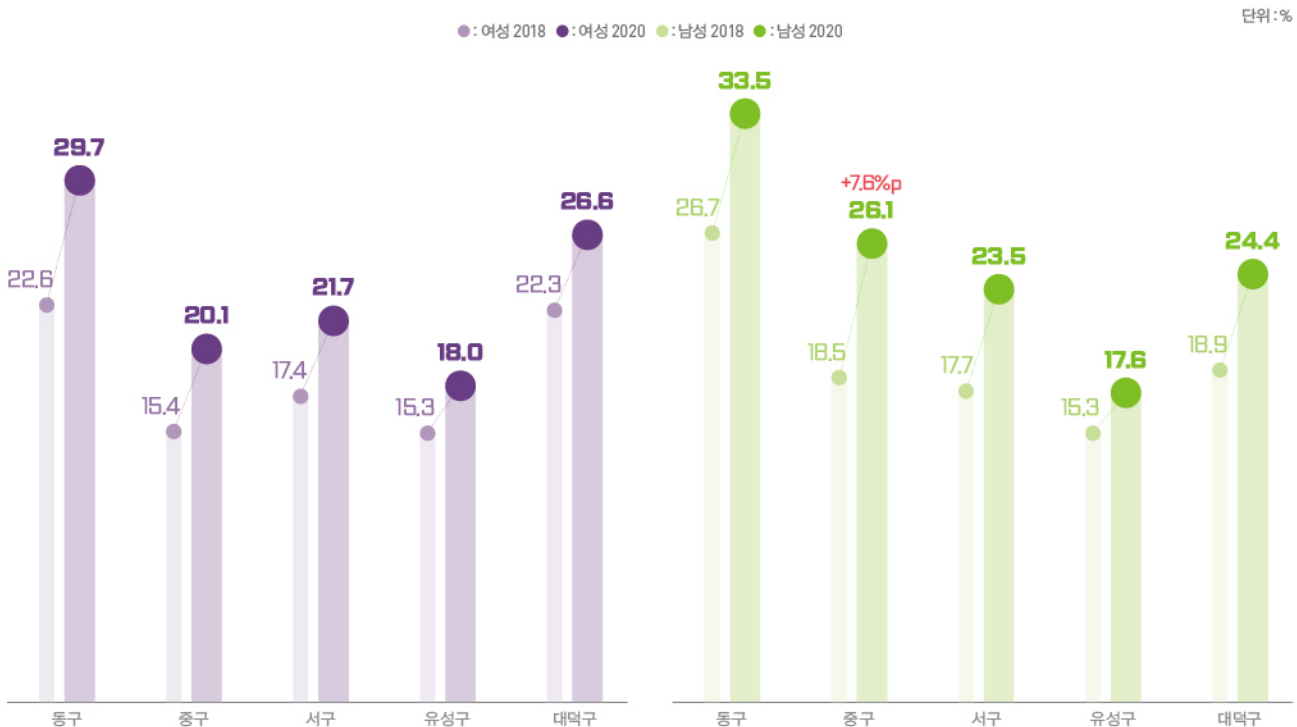
대전 독거노인 대비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1인가구

2020년 대전 65세 이상 여성노인 1인가구(35,353명)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3.4%인 8,260명으로 2015년(17.3%)과 비교해 6.0%p 증가했다. 남성 독거노인 수급자는 4,244명으로 여성보다 적으나 수급 비율은 5년 전보다 9.9%p 상승한 25.9%로 여성보다 높다.



대전 독거노인 대비 자치구별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1인가구 비율

자치구별 2020년 기초생활보장 수급 독거노인 비율은 여성과 남성 모두 2018년과 비교해 늘었으며, 동구의 수급 비율이 제일 높다. 동구, 중구, 서구는 남성 독거노인 수급 비율이 여성보다 높은 반면, 유성구와 대덕구는 여성 독거노인 수급 비율이 남성보다 높다. 특히, 중구 남성 독거노인 수급 비율 상승폭('18년 대비 +7.6%p)은 5개 자치구 남녀 중 가장 크다.



노인질병과 중증질환 앓는 노인 1인가구 늘어나, 특히 남성 독거노인 질환자비율 상승폭 커

*5대 노인질환: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골관절염, 치매

*4대 중증질환: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최귀난치성질환

*진료현황: 2020년 6월 기준 독거노인의 2019년 전체 진료내역

*인구수 기준으로 중복 제거함(1인당 2개 이상 질병을 가지고 있을 경우 1명으로 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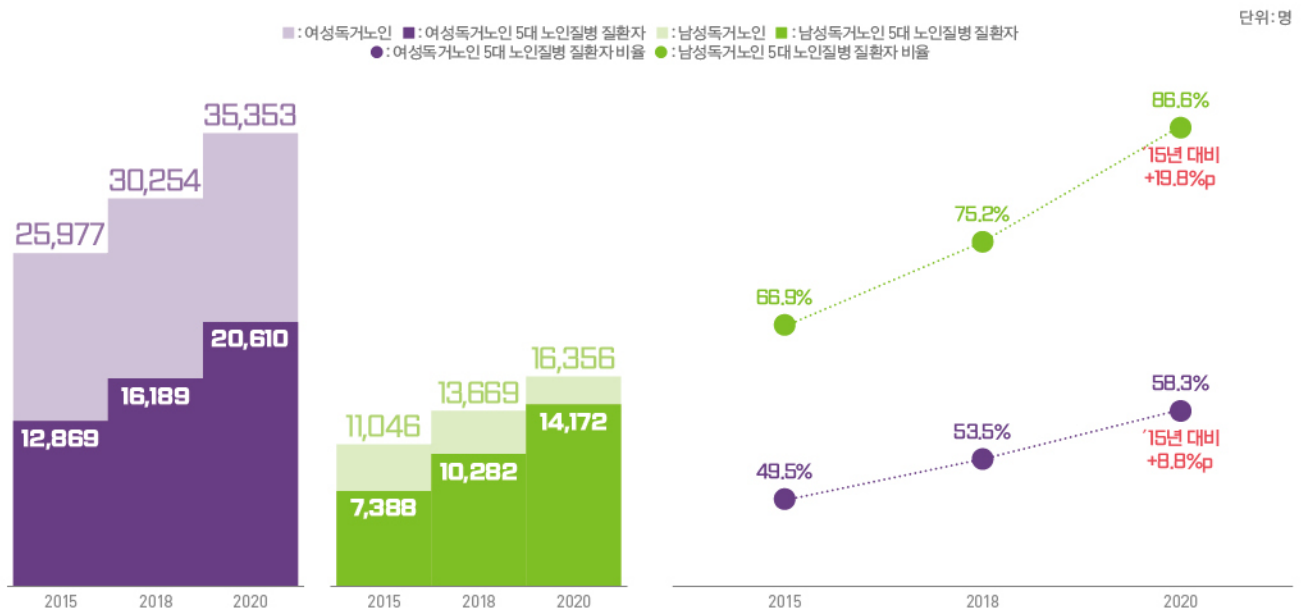
*『2020년 독거노인등록통계』보고서에서는 독거노인 건강보험 가입자중 주요 5대 노인질환자 및 4대 중증질환자수를 기준으로 비율을 제시했으나,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성별분리통계가 없어 본 브리프에서는 독거노인 수를 기준으로 비율을 산출함

*독거노인 5대 노인질환 or 4대 중증질환자비율 = 만 65세 이상 5대 노인질환 or 4대 중증질환 1인가구 / 만 65세 이상 1인가구 × 100

*출처: 대전광역시, 『2020년 독거노인등록통계』

대전 독거노인 대비 5대 노인질환 진료 노인 1인가구

대전 65세 이상 여성노인 1인가구 중 5대 노인질환자는 2020년 20,610명으로 58.3%가 해당되며, 5년 전보다 8.8%p 증가했다. 노인질환 진료를 받은 남성 독거노인은 14,172명(86.6%)으로 여성보다 적지만 2015년 대비 19.8%p 상승한 86.6%로 오름세가 가파르다.



대전 독거노인 대비 4대 중증질환 진료 노인 1인가구

2020년 혼자 거주하는 여성노인의 16.7%(5,892명), 남성노인의 33.2%(5,437명)가 중증질환을 갖고 있다. 중증질환 진료를 받은 독거노인은 2015년과 비교해 여성 +2.9%p, 남성 +9.1%p로 남성 독거노인의 증가세가 더 두드러졌다.

